K

P

A

한국회화

Korean Painting Art

2023년 통권 제30호



표지 제자 - 박방영

표지 작가 - 박종갑作 문명-쌓다 2022 (제3회 제주비엔날레 제주도립미술관)

K

P

A

한국회화

Korean Painting Art

2023년 통권 제30호

VISION 23, 한국회화 포럼

2023. 12. 13. 18:00-12. 14. 14:00

양평 블룸비스타호텔 & 임효작가 Studio

한국회화전

경계를 넘은 회화

2023. 12. 13(수) - 12. 18(월)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JMA스페이스

인사아트센터 6전시실, 6F

Jeonbuk Museum of Art Space

(우031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Tel 02) 720-4354

이천이십삼년 12월

제30호
한국회화회

Korean Painting Art

● '한국회화회'는 다양한 미술의 흐름 속에서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대정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의욕적인 작품활동의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지역의 작가들과 교류 및 전시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지역 예술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회화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역량을 높이고 저변확대의 기회를 널리 갖고자 한다.

● 2023년부터 '전북회화회'가 '한국회화회'로 명칭을 바꾸어 새롭게 태어납니다.

한국회화회 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 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회랑-주제전
1991. 1. 4- 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 "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 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 7 교동의 표정展-얼회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 "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
(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 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 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강사: 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 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 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청 세미나(주제: 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청강사: 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 청특강 (주제"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 3. 31 백제대학 기획 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 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홍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
(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 김영애, 윤호, 이혜련, 최윤경, 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 30-12. 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 ,신동)
2004. 6 정기모임: 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 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
-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 1. 26 뉴 육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 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회(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 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신입회원 이봉금)
2010. 11. 16-21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 9. 2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2013. 6 하계 MT (전남 중도)
2013. 9 신입회원 (송현성)
2013. 12. 10-15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3. 12. 통권 제20호 발행
2014. 2. 13 정기 모임 (신입회원 : 송태정, 이동형, 최윤진)
2014. 8. 13-19 정기 전시회(도립미술관 서울관)
2014. 8. 20-10. 22 최북미술관 대전 (최북미술관)
2014. 8. 23-24 하계 M.T (무주)
2014. 12 통권 제21호 발행
2015. 11 정기 모임
2015. 12. 10-29 정기 전시회(갤러리 누벨백)
2015. 12 통권 제22호 발행
2016. 11. 18-12. 9 정기 전시회(갤러리 누벨백)
2016. 12 통권 제23호 발행
2017. 12. 1- 8 정기전시회(남원 예가람길 갤러리)
2017. 12 통권 제24호 발행
2018. 2. 10 정기총회
2018. 4. 11 정기모임 - 송태정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6. 28 정기모임 - 박지예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0. 24 정기모임 - 박성수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1. 13-22 정기 전시회(누벨백 미술관)
2018. 12 통권 제25호 발행
2019 신입회원 (김준근, 박종갑, 오송규, 윤대라, 임진성
임 효, 임희성, 조병완, 최창봉)
2019. 1. 3- 4 동계 워크샵 (여수)
2019. 5. 7 정기모임
2019. 7. 3 좌담회 준비회의
2019. 7. 16 좌담회(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과
전북회화회의 발전 방안 모색)
2019. 9. 23 회의 (30주년 기념 전시 및 회화회지)
2019. 10. 2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논의)
2019. 11. 1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교정)
2019. 12. 12-21 전북회화회 30주년 기념 전시(누벨백 미술관)
2019. 12 통권 제 26호 발행
2020 신입회원 (김지현, 박방영, 이지희, 이호억, 진희란, 박두리)
2020. 1. 10 정기모임
2020. 7. 30 정기모임 (전북회화회지 및 정기전시 관련 회의)
2020. 11. 7 정기모임 (완산가/아트커뮤니케이션)
2020. 12. 5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논의)
2020. 12. 6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교정)
2020. 12. 12-19 정기전시 (누벨백 미술관)
2020. 12 통권 27호 발행
2021. 8 편집위원회 (회화지 논의)
2021. 10 정미현회원 작업실 방문
2021. 10 회화회 청년 작가 좌담
2021. 11. 24 통권 28호 발행
2021. 11. 30-12. 7 정기전시(누벨백 미술관)
2022. 4. 정기모임 및 이호억작가 작업실 방문
2022. 5. 편집위원회의(회화지 논의)
2022. 9. 미술기행(프리즈, 키아프 전시)
2022. 12. 통권 29호 발행
2022. 12. 6-12. 13 정기전시(누벨백 미술관)
2023. 5.13 파주미술기행 및 박방영 작가탐방
2023. 6. 편집위원회의 1차회의
2023. 6. 회화회지 발행 및 전시운영 협의회
2023. 9. 전시 및 포럼 운영회의
2023. 신입회원(정진웅)
2023. 12. 통권 30호 발행
2023. 12.13-12. 18 정기전(전북도립미술관 JMA스페이스 서울)
2023. 12.13-12.14 비전23, 한국회화 포럼개최(양평 블룸비스타호텔)

CONTENTS

2023 오늘의 작가

04 권기철
05 김준근
06 김지연 (가 득)
07 박두리
08 박방영
09 박성수
10 박종갑
11 박지예
12 방정엽
13 손다운
14 손종민
15 송화정
16 오송규
17 윤대라
18 이명자
19 이승훈
20 이지희
21 이철량
22 이호억
23 임 효
24 임희성
25 정미현
26 정진용
27 진희란
28 최지우

2023 전시리뷰

29 2023 전시리뷰
30 이지희 개인展
31 임진성 개인展
32 박지예 개인展
33 박종갑 초대展
34 피에타-윤대라展
35 손종민 개인展
36 권기철 개인展
37 박방영의 해학
38 임희성 개인展
39 박성수 개인展
40 정미현 개인展
41 최지우 개인展
42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기념展
'광주화루展 친숙하고도 낯선'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Wild Wild West
43 동행 일곱 개의 별展
교동미술관 기획展
44 2023 세계혁명미술展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45 이 땅에 새 숨展
대라쇼 10 to 10
46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
청년작가 기획展 BLUE

특별기고

47 특별기고
48 파주 미술기행 / 박방영 작가 탐방
49 중앙시장 사람들, 그후 30년
50 전근대 우리나라의 접착제
'왕의 초상화와 관의 채색에는 최상품의
아교와 녹각교를 사용했다!'
52 "지천년, 견오백(紙千年,絹五百)"
한지의 성지, 전주 흑석골!
54 기억의 반추(反芻)를 통해 나타난
'내면의 섬' 표현 연구
56 찾아가는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Artrium MORI

권기철 Kwon Ki-chul



Untitled 212x155cm 한지위에 먹 2023

나의 수묵 작업은 몸으로 그리는 몸 그림이고, 그 작품은 선이 변주되는 추상이다. 그것은 대상을 이미지로 읽고 몸의 제스처로 변환시킨 것이고, 직관과 몸짓만 남도록 한 배설의 또다른 형상이기도 하다. 서체에서 출발한 타이포가 드리핑된 <어이쿠>, <무제>란 표제는 시간이 공간의 개념으로 스며드는 작업 즉 순간과 행위의 합일을 의미한다.

한일자 (一) 선으로 시작된 하나의 상징이 때로는 수만 갈래 다양한 획으로 변주된다. 일테면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一卽多 多卽一'(일즉다 다즉일)을 함의한다.

작위와 무작위가 엄밀히 구획되는 작업에서, 붓과 물감이라는 도구는 마치 능동체 인듯 내 몸과 다르지 않다. 한지는 발묵과 번짐, 흘러내리기, 튀기기 등의 작용으로 팽팽한 긴장의 순간을 최대치로 구현할 수 있다. 그 위에 발현된 불균형한 형상들의 포치는 밀고 당기는 내밀한 에너지로 분배되어 균형미를 획득한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무아지경으로 몰입되는 지점, 거기에는 몸의 관성이 작동하는 행위가 생각이 분화하는 소실점을 만나 작업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탄생 된다. 나의 그림, 나의 작품은 고독한 길 위에 빙점처럼 정신의 날이 무아의 획으로 체득되고, 육화된 몸의 행위만을 남긴다. 나의 행위와 나의 그림은 온전한 합일체이다.

경북대학교 미술과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다. 광주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제주국제비엔날레, 트라이튜미술관(미국),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일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로미술관등 기획전에 참여하였고, KIAF, MANIF, 상하이엑스포, 서울아트페어에 출품하였다. 미술로 보는 스포츠와 놀이전, 스펙트럼-리듬 조형 교감전, 남도문화 음식기행전, 서울현대한국화전, 한국화동질성회복전 등, 1993년부터 파리, 도쿄, 서울, 대구, 부산, 제주에서 58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작품소장-국립현대미술관(과천), 대구미술관, 이중섭미술관(제주), 인당미술관(대구), 경북대미술관(대구),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정부종합청사(서울), 국회의사당(서울), 동양 엘리베이터(서울), 국립 국어원(서울), 대구시청, 대구은행 본점, 현대중공업(울산), 대구검찰청, 포스코 본사(포항), KBS 대구방송총국, 대구문화예술회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병원(대구), 601비상(서울), 칼레이트CC (군위) **출판물**-금세기 미술산책 권기철, 주노아트, 2008, 바람 소리 권기철, 601 비상, 2010, Now The Korea Artist 권기철, 도서출판 재원, 2014, 권기철, 인당미술관, 2014, 세상을 그리다, 달서문화재단, 2017, Now The Korea Artist 권기철, 도서출판 재원, 2022
M.P_ 010-2521-1431 E-mail_ tokipul7daum.ne www.instagram.com/kwon_kichul

김준근 KIM Jun-keun



기억여행 2023 51x117cm 석분, 토분, 담채 2023

유년 시절 경험되어진 기억의 세계를 자연스러운 선묘와 형상들로 다시 화면을 통해 마주한다. 이러한 기억의 조각들은 자연 친화를 통해서 얻은 자신이 살아온 일기장이다. 유년의 기억들은 석분과 토분으로 만들어진 화면위에 상감기법과 담채로 기록된다.아련한 기억속에 남아있는 유년의 꽃밭을 오늘도 조용히 들여다 본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미술학박사), 국내외 개인전25회(metalos/파리,워싱턴주립대학Museum/미국,서일본컨벤션센타/일본), LA한국문화원 초대전 (LA한국문화원 초대전/미국), MBC 미국개국기념 한국미술 대표작가전 (귀넷몰콘서바토리 아트홀/미국), 2009 피스드림아트페스티벌 현대미술제(Fundasion Tres Cultoras/스페인 세비야스), MUSEO DEL MARMO초대전(MUSEO DEL MARMO/이탈리아), 파리앙상블 초대전(Euni Ahn Allard 갤러리/프랑스), 한국기초조형학회 산호세대학 초대전(San Jose State Univ./USA), 문명의 기억과조형(주멕시코한국대산관문화원)
현재-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명예교수
M.P_ 010-2426-2632 E-mail_ nature@cbnu.ac.kr

김지연 (가 득) Kim Ji-yeon (Gadeuk)



Exodus 117x90cm 캔버스에 생칠, 포스카, 아크릴 2023

인류의 의해서 시각적, 기능적 변이를 가진 자연이 과연 숭고함을 가질 수 있을까.
'자연이 품어온 시간을 바라보며 나의 시간을 그 위에 더하는 일'을 통해
'변이 된 자연의 숭고미' 를 찾으려 한다. 나는 지각할 수 없지만 인지할 수 있는 불변적 존재를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가공되는 지각의 현상으로 보고 인식해 갈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연구를 시작한다.
평면 캔버스 위에 보이는 붓의 힘과 표면의 갈라짐을 통해 시간의 힘을 가진 대지의 모습을 시각화 하였다.

2022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원 한국화과 수료, 서울, 대한민국 (박사), 2020 브라이튼 대학교 순수미술전공 졸업, 브라이튼, 영국 (석사), 201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중퇴, 서울, 대한민국 (석사), 2013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 졸업, 서울, 대한민국 (학사)
개인전-2022 삶의 파장, 쿠마, 서울, 2020 메마른 영혼과 피폐한 마음에 다시 사랑이 시작되기를, 갤러리 아미디, 서울, 2018 삶의 파도,공간:일리, 서울, 2016 삶의 파장, 커피식탁, 서울 2015 가득, 샐모네치킨, 서울 **온라인 개인전**-2018 가득 김지연전, 아트허브 갤러리 **커미션 작업**- 매거진 럭셔리 2019 6월호 _ Cosmetic + Art (NARS 협찬) **그룹전**-2023 마주함에 대하여, 카페꼼마X갤러리아미디[여의도], 서울, 2023 에레츠, 갤러리아미디[한남], 서울, 2023 원시인접착제, 스페이스카다로그, 서울, 2023 지금의 뿌리, 일백헌갤러리, 서울, 2022 A&E, 카페꼼마X갤러리아미디[신사], 서울, 2022 담양아트위크, 담주 다미담예술구, 담양, 2022 사이세상, 아트비트 갤러리, 서울, 2021 다시걷다, 혜화아트센터, 서울

박두리 Park Du-ri



머플리아토 45x45cm Oil on canvas 2023

불통은 감정과 상상을 유기체로 성장시킨다. 상상의 유기체는 회화를 실현하고, 감정과 상상은 모체에서 뻗어나가 파생, 확장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성장하면서 몸짓을 키운다. 불통으로 커진 상상의 유기체는 백일몽으로 떠올라 회화로 남겨진다. 그 과정에서 언어의 한계성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언어로 완전히 전달하지 못한 것들을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남겨진 회화는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며 불통을 소통으로 변환시키는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 낸다.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0 / 긍정적 뜨내기 / 신세계갤러리 / 광주, 2019 / Fragile / 경성방직 프로젝트 / 서울, 2018 / 경계의 모양-집합B / 아트스페이스 오 / 서울, 2017 / CONTE / 갤러리 밈 / 서울
수상/레지던시-2013 대구예술발전소 13기 입주작가, 2022 인카네이션 예술상, 2022 달천예술창작공간 2기 입주작가, 2020 경남예술창작센터 13기 입주작가
2019 대만 타이베이 관두미술관 KdMoFA 파견예술인, 2019 신세계 미술제 신진작가상, 2019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2018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박방영 Bak Bang-young



벗과 나 74x206cm 장지위 혼합재료 2019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물들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펼쳐진 것이다. 옛 글 중에 관물지외물(觀物之外物)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내가 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DNA, 활동성, 방향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자는 자기가 보는 것과 조응하면서 자신을 기억 <REMEMBERING. Re(다시) - Member(조직하 다)>해 내는 것이다. 다시 조직해가며 자기 찾기를 통해 진화해 가는 것이다. 내 인생 길에서 인연 만남 체험했던 모든 것이 현재의 나이다.

나는 획으로 지지체를 삼고 작업을 한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서예, 서법으로 전국대회 최고상을 탔던 만큼 획에 대한 느낌을 잘 알고 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서예의 필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동양의 획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밧줄 같은 둥근 입체성을 가진 것이다. 획은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 획을 통해서 삶에서 느끼고 깨닫는 것들, 자연과 인간 우리가 예로부터 가져왔던 우리 것. 역 사와 전통, 해학, 고졸미, 원시성, 영적 진화와 민화가 그랬던 것처럼 집안에 운세를 만들거나 발 복, 건강 등의 바램도 그리곤 한다.

그림을 그리다는 것은 바램이나 선언을 실체화 시켜 당겨 끌어 온다는 말이다. 꿈을 그리다, 사랑을 그리다, 그림을 그리다는 말은 같은 의미이다. 그리워한다는 말이다. 그리워 한다는 의미는 바램(에너지)을 끌어 온다는 말이다. 꿈을 끌어온다. 사랑을 끌어온다는 말이다. 그 림은 바라는일, 즉 보다나은 삶을 끌어 오는 행위이며 꿈, 사랑, 바램을 실체화 시키는 일이며, 영적 진화를 이뤄가는 길이다.

나의 그림은 일필휘지로 기운생동 하게 분출하듯 한지위에 먹과 펄 아크릴을 혼합해서 그림을 그 린다. 한지는 스며들고 번지는 효과가 있어 위로만 쌓이는 캔버스와 구별된다. 보다 동양의 정서 에 어울린다. 나의 그림을 통해 건강하고 즐겁고 깊은 삶으로 이끌 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홍익대 및 동대학원 서양화과졸업,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수학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 박사과정 수료, 세한대학교 조형문화과 서양화전공 교수 역임, 개인전- 2022 '차 마시는 호랑이' (마로다연 갤러리, 광양), 2021 '박방영'전 (갤러리 담, 서울), 2019 '박방영의 천연의 획' (아리수갤러리, 서울), 2019 '박방영의 획' (우진문화 갤러리, 전주), 2018 '봄이 오다' (서담재 갤러리, 인천), 2018 박방영의원시성 '유' (면천읍성안그미술관, 당진), 외, 작품소장-OECD 프랑스 파리 사무국, 전주팔복예술공장, 인천아트플랫폼인천문화재단, 건축물장식 설치 (제목: 고구려 여행)우수영마을 부조 작품 설치 (제목: 1.거북선과 강강수월래 2.우수영마을이야기)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경기도미술관경기문화재단청주박물관— 국립극장 두바이대사관, 제주현대미술관, 동아제약연구소, 반계유형원유적지, 인천의료원, 행촌문화재단 , 미황사 등

박성수 Park Sung-soo



무제 130×97cm 캔버스천위에 닥종이 2023

나의 최근 작업에서 보이는 촉각 경험의 시각적 제시는 오늘날 디지털 질서가 지배하는 비이상적 시각중심 문화에서 비롯된 촉각 경험의 상실감을 복원하고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시각 경험만이 중요해진 이 시대에는 촉각경험 일 때 수반되는 많은 과정이 생략 된다. 시각 경험은 대상과의 신체적 거리와 둘 사이의 신뢰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촉각 경험을 위해서는 실제적 거리와 둘 사이의 신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불행은 디지털로 매개된 시각 중심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손자국 만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통해 시각경험에서 촉각경험으로의 환기를 유도하여 거리와 신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차가운 디지털 화면 위를 부유하는 나와 같은 감상자들에게 닥종이 특유의 따뜻한 질감이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2023 촉각공간, 공간시은, 전주 외 13회
수상경력-2016 전북 청년작가 선정, 전북도립미술관,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 선정, 서울문화재단, 2012 해외교류전시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2009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수도권전시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2008 <시각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전주문화재단, 2007 2007-2008 미술작가지원사업, 우진문화재단
레지던시-nars foundation 뉴욕, 미국(2016), 전북창작스튜디오(2016), 경기창작센터(2014~2015),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2011~2012)

박종갑 Park Jong-gab



기공(氣孔)-門 12×12cm 크라우드지에 수묵 2023

官知止 神欲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국내·외 **개인전** 22회 및 **기획, 초대전** 300여회 참여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 세계혁명미술전(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2022 제주비엔날레(제주도립미술관)/막간展(전남도립미술관),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홍천)/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0 필묵지간筆墨之間(駐)홍콩한국문화원), 2019 상하이국제종이비엔날레(상해奉贤博物馆)/ 동경국제展(동경도미술관),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목포)/한국수묵 해외순회展(駐)상해한국문화원), 2017 대만국제수묵화대전(국부기념관) **수상**-송은미술상, 이당미술대상 **심사**-'송은미술대상전' / '광주화루' /겸재 '내일의 작가' 심사위원 등 **현재**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장, 경희대학교 부설 현대미술연구소장, 동서미술학회 부회장
M.P_ 010-3793-2689 E-mail_ namu42@khu.ac.kr

박지예 Park Ji-ye



마주침의 표현 212x150cm 종이에 채색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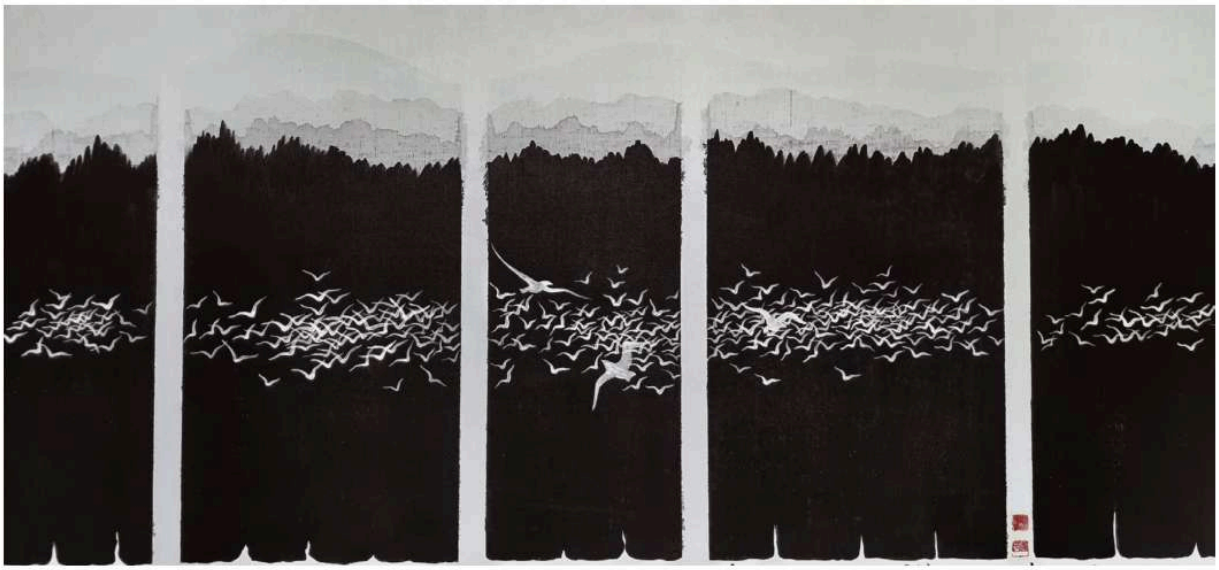
마주침의 표현 # 하나의 세계 # 우연적

이번 전시는 '마주침의 표현'이란 주제로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내가 눈으로 보는 형태는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이고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눈으로 보는 세계에 대한 소통을 통해 자신의 본성과 외부 자연의 본성 사이의 마주침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신의 탄생과 함께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이런 세계는 행위의 표정, 감정, 생각과 같은 보이지 않거나 말할 수 없는 어떤 세계에 대한 마주침으로 나타난다.

화면 속 대상의 몸짓과 행위는 붓과 물감의 마주침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우연적 색감으로 변화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대상의 관념에 의존하지 않고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북대학원(미술학과 한국화전공) 박사(졸업), 원광대 대학원 졸업 (미술대학 한국화전공)
개인전10회, 그룹전 다수
전)근현대사미술관 담다(부관장), 국립전주박물관 한국화교실 강사,전북대박물관 전문연구원, 전북대 겸임교수, 전북대, 충북대, 원광대강사
E-mail_ pjy7822@hanmail.net artcelsi.om/parkjiye

방정엽 Bang Jeong-yeop



비상을 꿈꾸다 60x120cm 천+수묵채색

만추의 햇살이 눈부시던 날, 길을 나섰다.
금강변 바람은 뺨이 시리게 칼바람을 휘둘러대고
그 칼바람에 갈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맡기며 춤추고 있다.
세월의 덧없음도 지혜로 이겨내고
이제는 행동과 사고도 유연해질 나이,
강 건너 갈대밭 위로 비상하는 새때를 보며
내 관절의 깊은 바다에서 무수히 나는 갈매기 날개짓에
다시 한번 비상을 꿈꾸는 것은 과욕일까?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한국회화회 회원

손다운 Son Da-un



꿈의 빈자리 90.9x65.1cm 종이에 수묵 담채 2023

나는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다. 그러한 공간을 자연에서 찾은 것이다. 자연은 이러한 나를 위해 비어 있고, 그 비워진 자연 속에 내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내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연은 모두 인위적이지 않은 그 자체이며, 이 자연은 변형되거나 바뀌지 않는다.

국립 전북대학교 미술학부 졸업, 국립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 과정 중
개인전-2022 예술공간 결 기획 초대전 '손다운 개인전 [빈자리]' / 예술공간 결 / 전주, 1st solo exhibition 'The rest of a fairy' / 누벨백 미술관/ 전주
단체전-2023 W미술관 기획전 '사라져가는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 W미술관 / 익산, 2022 제29회 전북회화회전 / 누벨백미술관 / 전주, 다시 돌아온 봄 / 신공간 갤러리 / 서울, 호랑이 그림展 / 연석산미술관 / 완주, 2021 공존·공생 그리고… / 팔목예술공장 / 전주, 우리동네 인물들 / 동문길 60 / 전주, 청목신예작가초대전 / 청목미술관 / 전주, 젊은 고뇌, 서로를 잇다' 누벨백 미술관 특별전 / 누벨백 미술관/ 전주, 제30회 신예작가 초대전 / 우진문화공간 / 전주, 'FANTASY' 2인전/ 누벨백 미술관/ 전주, 2020 'Sweet After Bitter'/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 '?!.' / 길 위에 갤러리 레드박스 / 전주, 2018, '팔방미인'/ 덕진 갤러리/ 전주, **작품소장**-청목 미술관 / 전주
M.P_ 010-3063-5878 E-mail_ ekdnsson20@naver.com

손종민 Son Jong-min



Portrait 65.2x91cm korean ink on oreantal paper 2021

먹그림은 일종의 계획 없이 거친 오석(烏石)을 조각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먹 작업은 하얀 종이에 엷은 먹 선을 시작으로 형상을 만들고 조금씩 단단한 검은 형상을 만들면서 망치로 부수고, 끌로 깍아 내는 조각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

먹 작업 중 가장 필요하며 힘든 것은 과감한 감성적 결정인 듯하다 . 이것은 모든 예술적 작업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나 특히 먹 작업에는 과감한 예술적 감성 선택이 필요한 듯하다. 발가벗긴 날 것 같은 감정 자국들이 그대로 보여 주는 먹 작업은 현실에서 맛 볼 수 없는 음악적이고 평온한 자유와 위로를 준다.

동의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個人展-2023 손종민 "독백"展. 미광화랑, 2021 손종민 "portraits"展 - 부산 화인 갤러리, 2019 손종민"사람(people)"먹그림展- 화인 갤러리, 부산
2019 손종민 "사람"먹그림展- 인사아트센터,서울, 2017 손종민 "사람들" 먹그림展 - 화인갤러리,부산, 2017 손종민 개인展- 남해 바람흔적 미술관, 경남 남해
2016 손종민 먹그림 展 - 해운아트 갤러리,부산
Email_ yasul2000@hanmail.net.

송화정 Song Hwa-jeong



여러 날의 기억이 쌓여 70x136cm 한지에 수묵

나의 작업은 자연에서 받은 감동이나 인상을 조형적으로 재해석한다. 모필 특유의 옹골찬 선이나 수묵의 뭉근한 번짐에 집중하여 표현하는데 주로 잎, 열매, 줄기 등이 엉겨있는 풀꽃 등의 모습에서 생명감을 포착한다. 대상의 외면을 뻔하게 묘사하기보다는 형태를 단순화하고 내재한 기운을 응축하여 색다른 조형 언어로 자유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2023 동행, 일곱 개의 별 (누벨백미술관), 2016~2023 건지회 정기전시회 (전북예술회관,서학아트센터), 2017~2022 전북회화회 정기전시회 (누벨백미술관), 2023 군산대 하모니전 (군산대학교 미술관), 2022 동행, 다섯 개의 별 (누벨백미술관) , 2022 다시 돌아온 봄 Group전 (서울 시공간화랑), 2019 '여유 먹빛을 보다' 3인전 (누벨백미술관)
M.P_ ilikegogh@hanmail.net

오송규 Oh Song-g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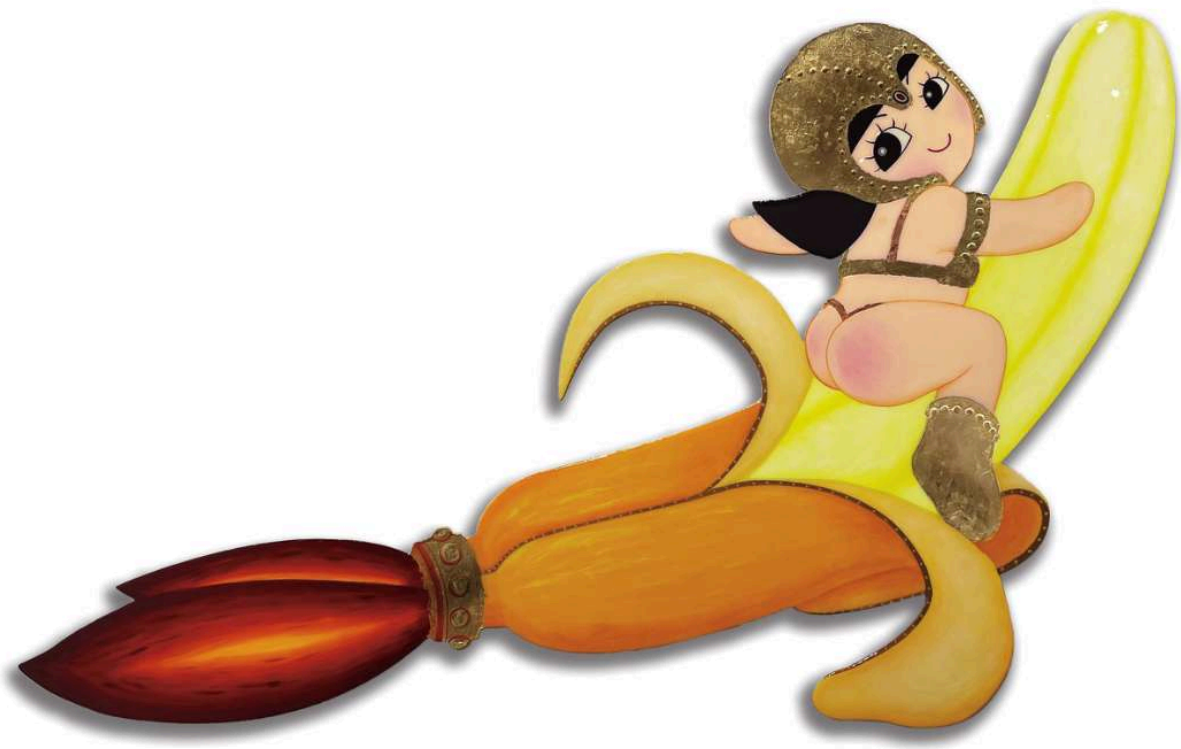
소요2023-12 126x70cm 화선지에 수묵 2023

수묵작업을 해오면서 수묵의 본연의 먹색을 찾고 발현하기 위해 애써왔다.

먹이 가지는 유연한 색감이 좋아서다. 물과 먹이 만들어내는 우연의 조화는 항상 나를 매료시킨다. 나는 가지않는 숲길을 동경해 왔다.달빛속에 비치는 하얀길은 나의 사유의 길이다. 내가 살아온 길 앞으로 살아갈 길 끊임없이 이어진 삶의 길이다. 이러한 길의 모습을 통해 내삶을 성찰하고 나의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32회, **단체전**- 2022 제27회베세토미술제베이징 전시(북경민족문화궁전/중국), 청주미술협회 회원전(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청주), 동서미술문화학회 회원전 이미지의 경계 시대와일상전(한벽원미술관/서울), 2019 북경비엔날레, 2019 전남국제수묵화 비엔날레(목포문화예술회관), 2018 뭄바이 비엔날레(뭄바이/인도), 챈나이 챔버 비엔날레(챈나이/인도), 한국화-옛 뜰에 서다(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10 부산국제아트페어(부산문화회관), 수묵에 길을묻다(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현재-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한국기초조형학회 이사, 동서미술문화학회 부회장
M.P_ 010-3751-2185 E-mail_ sunve@hanmail.net

윤대라 Yoon De-ra



비키니소다, 최종병기 그녀 155cm 가변설치 Mixed media 2023

비키니소다, 세계의 완전체로 날다.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11회의 개인전과 200여회의 기획,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명자 Lee Myung-ja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62x91cm

해가 뜨고 바람이 부는 잔잔한 일상의 삶을 흐르는 물로 표현하였다. 오늘도 나의 삶은 잔잔한 물줄기가 되어 고요하게 흐른다. 흐르는 물속에 나의 삶을 투영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어져야할 나의 이야기들을 표현한다.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들을 담은 나의 선은 오늘도 화선지에 담긴다. 흐르는 물처럼 나의 이야기가 흘러감에 감사한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공모전 및 단체전 80여회, **아트페어** 2회
현재-전주솔내고등학교 교사, 전북회화회, 전북판화가협회 회원
M.P_ 010-8004-5895

이승훈 Lee Seung-hoon



가을계곡 풍경 70x136cm 지본채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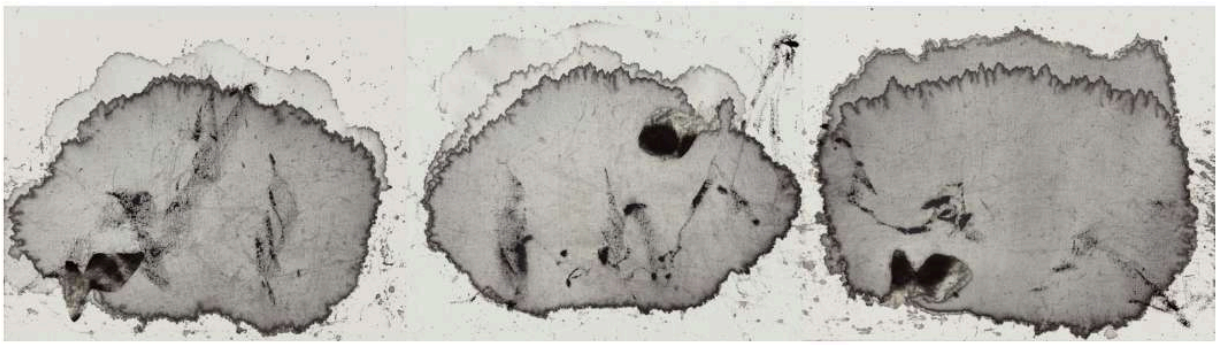
전통 산수화에서 감각의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다. 계곡풍경은 계절의 맛을 잘 살릴 수 있어서 지루하게 다루고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계절의 변화는 삶의 아름다움을 격려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자연이 소재인데, 자연은 내 어린 시절을 소환한다. 겨울을 지나면 신록이 시작되고 녹음을 지나서 가을 분위기를 맞이하면 누구나 감성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유년을 겪은 소년이 나이 들면서 더욱 아릿한 정겨움을 지나칠 수 없었다. 많은 시인 묵객이 아름다운 계절을 노래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도연명의 사시(四時)는 춘수만사택(春水滿四澤)으로 시작하는데 추월양만휘(秋月揚明輝)라고, 가을 달은 밝아 밤을 환하도록 비춘다는 것이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로 유명한 구르몽의 시 낙엽, 두목의 산행에 나오는 구절은 "서리맞은 단풍 봄꽃보다 더 붉어라."라는 가을 감성을 잘 표현하였다. 시인이 산행하다가 잠깐 멈추어 서서 풍경을 바라보는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이 그림이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느끼게 하였으면 한다.

전주대학교 미술교육과, 동 대학원 한국화전공
개인전-3회, 전북나우아트, 군산아트쇼 등 참가, 감성 그 시간 속으로(2014, 맴씨터) 미술칼럼집 출판, 시와 그림, 감성의 바다(2019, 열린출판) 미술칼럼집 출판
익산예인열전 (2020, 익산문화관광재단), 공저 출판
현재-한국미협, 한국회화회, 아트전, 전북수묵회, 현대미술드로잉 회원
M.P_ 010-4115-0577 E-mail_ misege@hanmail.net

이지희 Lee Ji-hee



심해수족관 No.15 38x138cm 면천위에 수묵콜라주 2023

본인은 잦은 이주로부터 겪은 이방인과도 같은 삶인,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모한 자신의 처지로부터 스스로 고립시켜왔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마주함으로써 일으켜지는 불편한 감정이 마음 속 찌꺼기처럼 남아 끊임없이 반추되는 현상을 경험한다. 이렇듯 내면에 불편한 감정을 인지하고 존재의 질문으로 대면하는 일련의 과정을 <심해수족관> 작품의 창작 동인으로 삼았다.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 박사 (Ph.D), 경희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 석사 (M.A), 中國 中央美術學院 中國畵 山水畵 학사 (B.A)
최근 주요 전시-2023 <歡迎할 수 없는 幻影> LEE JIHEE Solo Exhibition (큐아트스페이스, 파주), 2023 <동행, 일곱개의 별> 기획전 (누벨백미술관, 전주)
2023 MZ x 뉴미디어 아트페어 (인사센트럴뮤지엄, 서울) 그외 80여회 다수 참여
M.P_ 010-2855-4226 E-mail_ jjsok6459@gmail.com

이철량 Lee Cheol-ryang



Another nature0423 91x116.8cm Muk on canvas 2023

- 나는 자연의 생태를 감지하려 하며, 그 형식을 구성해 보려 한다. -

80년대 한국미술(전북도립미술관 2015), HERE NOW(포항시립미술관 2015), 아틀리에 스토리전(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17)
국제수묵비엔날레(목포예술회관 2018), 수묵신작로(광주시립미술관 2020),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021)

이호억 Lee Ho-uk



氾濫庭園-호흡 210x150cm 한지에 묵필배접 2022

여기 大地 위에 生命이 숨을 쉰다.
그의 흉곽은 커지고 작아지길 반복하며 숨을 고른다.
정원 밖으로 달려 나온 생명의 숨.
여기 大地 위에 生命이 숨을 쉰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2022 《범람정원氾濫庭園》, 갤러리조선, 서울, 2022 《무진無盡》, 영은미술관, 광주(경기도) 외 11회
단체전-2023 《Break Time》, 갤러리조선, 서울, 2023《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엠엠아트센터, 평택, 2023 《친숙하고도 낯선》, 광주은행아트홀, 광주, 2022 《마음보양》, 성남큐브미술관, 성남, 2022 《다시, 봄/다시 : 봄》, 연산문화창고, 논산, 2021 《2021 CRE8TIVE REPORT》, OCI미술관, 서울 **수상**-2017 《제1회 광주화루 대상》, 광주은행/국립아시아문화전당
레지던시-2022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020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임 효 Rim, hyo



청연 102x80cm 2019

祈禱

누구나 그런 때가 있다. 소중한 꿈, 소중한 사람, 소중한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때가 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사람들은 그것을 염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염원은 누구나 간절하기에 깊고, 진심이기에 진실되다.
이 크고 작은 마음들은 깊고 진실되어 맑으니(淸) 어찌 청(靑)빛이 아니랴?
그 모습이 마치 강과도 같고, 바다와도 같고, 우주와도 같다.
모두의 염원을 담아 흐르는 청(靑)빛은 그런 간절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그저 샘물 마냥 고요하고 잔잔하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다 보면, 사람의 가장 간절한 염원이 닿을 때가 있다.
간절한 누군가에겐 그 때가 바로 지금일지도 모른다. 지금, 푸른 은하수와 같은 기도의 샘물에 누군가의 소망 한 조각이 연꽃처럼 피어난다.
바라왔던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황홀하리라. 진실하게 노력한 누구에게나 그런 황홀경(恍惚境)은 언젠가 찾아올 터…

하얀 종이를 펼치고 먹을 먹인 筆을 드는 순간
기도의 샘물은 오늘도 나의 '염원'을 담고 그렇게 '영원'히 흐르고 흐른다.

개인전-29회 서울, 부산, 전주, 미국 L.A , 독일 메켈렌부르크,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전 (국립 현대미술관개관기획 ,과천). 서울 미술제 (서울 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개관기념(한가람 미술관),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국제전-바젤, 상하이, 이스탄불, 파리, 피아, 쥬리히, 한국아트페어 등 참가, 7회 동아미술상, 13회 선미술상
작품소장- UN ESCAP, 국립현대미술관, 국립 전주박물관, 서울 시립미술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홍익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한국은행, 한솔문화재단, 금호생명, SK연수원
고은미술관, 기당미술관, 서울 삼성의료원

임희성 Yim Hee-seong



위로의 풍경-Forest1 80.3x116.8cm 엠보아크릴보드에 아크릴 2022

나의 작업 방식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유추되었다.
하루하루 시간, 경험, 순간의 감정 이러한 것들이 모여 삶이 만들어지듯이
색면 하나하나의 다양한 형태와 색감들이 층층이 나의 화면을 구성해 나간다,
삶의 많은 시간과 경험이 쌓여 있듯이 나의 그림도 여러 겹으로 차곡차곡 만들어진다.

2008 중앙대학교 한국화학과 졸업 / 2012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학과 졸업
개인전 7회 단체전 50여회
E-mail_ iart81@naver.com instagram.com/heeseongyim

정미현 Jeong Mee-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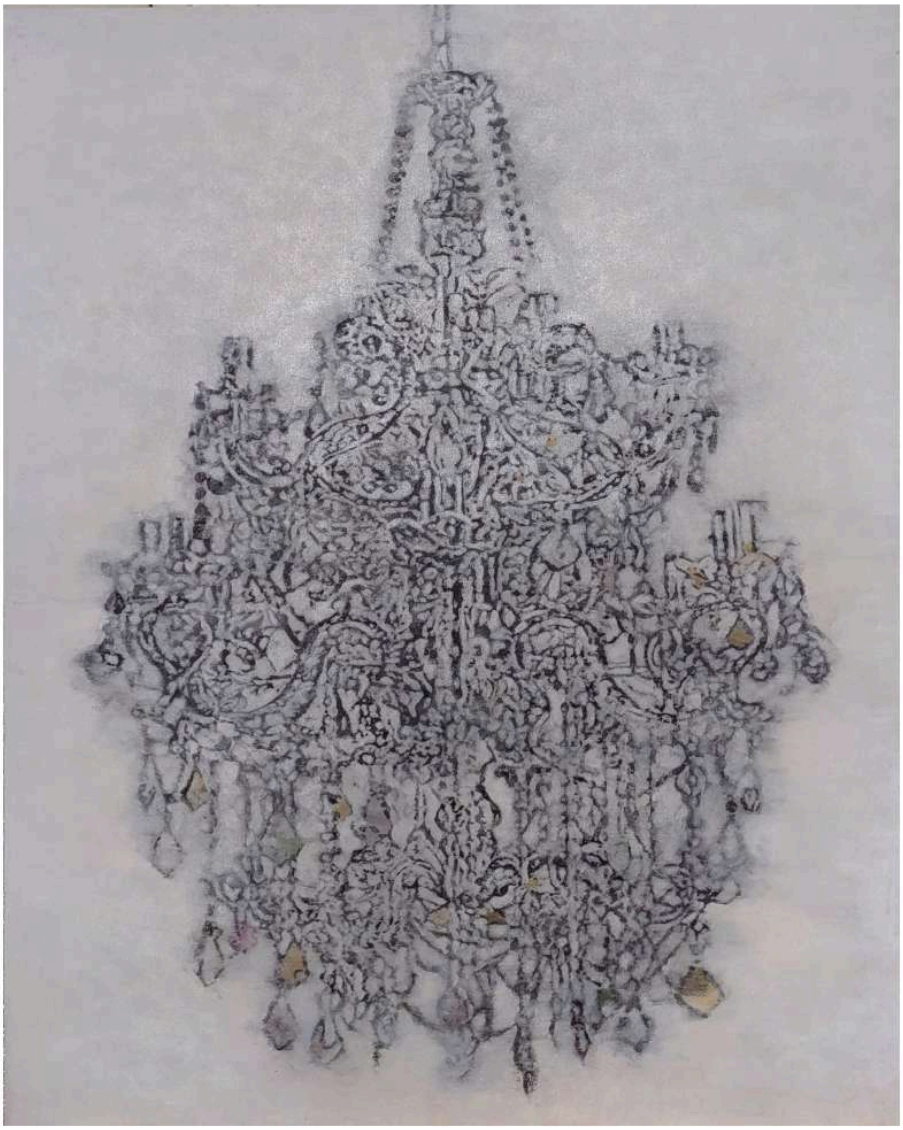


Imaging of message 91x116.8cm 캔버스에 수묵 2023

'소리의 은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음악이 주는 영감과 감흥의 메시지를 수묵의 감성으로 시각화해 나가는 'imaging 0f message'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작업의 과정 속에서 음률의 파동을 통해 영감을 일으키며 펼쳐내는 작업이다. 깊은 몰입과 교감은 생명력으로 작업과 마주하게 하며, 새로운 찰나의 울림으로 작업의 경계를 넘나들게 해 주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나를 일깨워 주는 작업의 시간이었다.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9회, **단체·기획전**-전북미술의 현장전(전북도립미술관), 현대수묵-각양각색전(우진문화공간), 墨香, 먹의 고향에서 피다.(누벨백미술관) , 수묵 동행 6인전(아트비트갤러리 서울)
水墨 時色전(전북도립미술관 JMA스페이스서울), 동행, 일곱 개의 별展(누벨백미술관) , 時間(개관10주년 누벨백미술관)
현재-한국회화회, 건지전 회원
M.P_ 010-3682-3560 E-mail_ hyun3560@hanmail.net Instagram_ jeongmeehyun21

정진용 Jeong Jin-yong



CandellaDrawing #3 91x73cm K_ink, color, glass micro spheres on canvas 2023

정진용작가(1972~)는 2005년 미술학박사학위 취득이후 CIGE, 아트베이징, 타이베이 아트페어, 아트시카고, 아트 마이애미, 아트뉴욕, 아트바젤, 쾰른아트페어, 취리히, 및 비엔나페어, 뮌헨쿤스트메쎄 등 다양한 국제아트페어 및 기획전시에 참여하였다. 2007년 한국작가 최초로 중국과 대만을 커버하는 유력 미술지 당대예술신문 CAN의 표지작가로 선정되어 중화권에 소개되었고 이후 한국과 중국, 대만 및 유럽과 미국등지에서 전시활동 하였다. 2005년 제 1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작품 추천위원, 서울시립미술관 난지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1기,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4기, 출판도시아트플랫폼 1기 및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1기로 활동하였다. 작품소장처는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두바이대사관, 송은문화재단 및 국내 개인 소장자들과 시카고, 뮌헨, 베이징 상하이 타이베이등지의 호텔 및 개인소장자들이 소장하고 있다. 현재 국립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진희란 Jin Hee-lan



두류전도 106x65cm 순지에 수묵담채 2023

'산로山路'는 여정에서 본 길이다.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눈을 감고 떠올린다.
잔잔하게 남은 여정의 기억은 길을 따라 심산心山을 만들고 아련함이 가득찬다. 그 아련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뿌연 안개 속 빛처럼 희미함 속에 더욱 선명해진다.
산로를 따라 국내의 산천을 산행하며 느낀 자연의 변천과 순리, 경외감과 광활함 그리고 그 속에 융화되어간 사람의 흔적과 세월을, 산수(심산)의 모습으로 빚어내어 다시금 이야기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 학사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 석사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 박사 수료
개인전 9회-2020 <두류담경>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단체·기획전-2022 <4緣> 아트버스 카프. 서울, 2021 <네가 선택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어 : 신구운몽 新九雲夢>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2020 <제11회 畵歌 감각기억 Sensory Memory> (재)한원미술관. 서울, 2019 <2019 겸재 내일의 작가 공모 수상자展-내일의 작가>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2018 <한국의 아름다움> 외교부 상황실. 서울, 2018 <제2회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 광주 외 다수

최지우 Choi Ji-woo



한국은 여호와의 동산 91.0x116.8 cm Mixed media on canvas

행복을 그리는 "에덴작가" 최지우입니다:) 저는 서양화를 전공했고, 화풍은 한국의 전통 그림인 십장생도를 차용함으로써 한국인이라는 제 정체성을 담고 싶었습니다. 항상 저의 작품의 주제가 되는 에덴동산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神)과 함께한 행복이 시작된 공간입니다. 동양적인 비유로 무릉도원 같은, 마치 천국과도 같은 장소가 바로 에덴입니다. 저는 신을 믿으며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작업에 대한 영감은 성경말씀에서 얻습니다. 이번 작품은 천국을 보석에 비유한 말씀을 보고 표면에 큐빅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 요한계시록21장11절) 이번 작업도 제가 있는 곳은 어디든 신과 함께하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을 에덴(천국)으로 표현했습니다.

국립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학사
개인전 4회, **단체전** 24회, **아트페어** 7회
@artist_ji_woo



2023 전시 리뷰

30 이지희 개인展
31 임진성 개인展
32 박지예 개인展
33 박종갑 초대展
34 피에타-윤대라展
35 손종민 개인展
36 권기철 개인展
37 박방영의 해학
38 임희성 개인展
39 박성수 개인展
40 정미현 개인展
41 최지우 개인展
42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기념展
'광주화루展 친숙하고도 낯선'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Wild Wild West
43 동행 일곱 개의 별展
교동미술관 기획展
44 2023 세계혁명미술展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45 이 땅에 새 숨展
대라쇼 10 to 10
46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
청년작가 기획展 BLUE



환영의 숲 122x333cm 아사천에 한지 비단 수묵 콜라주 2023



이지희 개인展

환영(歡迎)할 수 없는 환영(幻影)

일정: 2023. 04. 01 - 04. 30

장소: 큐아트스페이스

나의 작업은 불편한 감정기억으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오랜 기간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이주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기억'과 '불편한 감정', 그리고 '존재'의 관계성을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던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로부터 기인한 것으로써 작업의 가공과정을 통해 형성된 조형적 결과물인 '환영(幻影)'은 심리적 경계를 초월한다.

작업의 가공과정으로는 첫째는 감정기억의 형상을 수묵의 흩뿌림을 통해 '1차 그리기'로 나타내고, 둘째는 나의 그림을 스스로 오려내는 행위인 '2차 오리기'이며, 셋째는 오려낸 조각이 재가공되는 '3차 붙이기'로 진행된다. 이러한 제작과정은 불편한 감정기억이 끊임없이 떠올려지는 자기반추(反芻)를 스스로 해소하고 정화하여 자신의 부정성을 제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환영(歡迎)할 수 없는 환영(幻影)>전시는 오려진 울음조각들이 새로운 공간에 중첩되어 '심해(深海)'라는 비가시적 장소로 확장된 공간을 보여준다. 여기서 조각들이 바다생물로 표상되어 '심해(深海)' 속을 끝없이 헤엄치는 자신으로 비유한다. 상징하는 의미와 조합과정에서 생성된 바다생물이 곧 자기 해소된 '환영(幻影)'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반추 된 감정기억을 드러내고 조각내는 행위는 자신의 심리적 오물을 발설하고 정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나의 환영(幻影)들은 결코 기쁘게 환영(歡迎)할 수 없다.

나는 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 감정을 존재의 시선으로 대면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괴로움을 작품창작 동인으로 삼는다. 이는 기억을 그리는 예술적 표현이 예술가에 있어서 자기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고, 자신의 내재적 내러티브와 어울림을 통해 '나'라는 본질적인 '자아'를 찾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부유하는 몽유금강 114X174.4cm 한지에 수묵채색, 금분 2023

임진성 개인展

세필에 담아낸 시간

일정: 2023. 02. 22 - 0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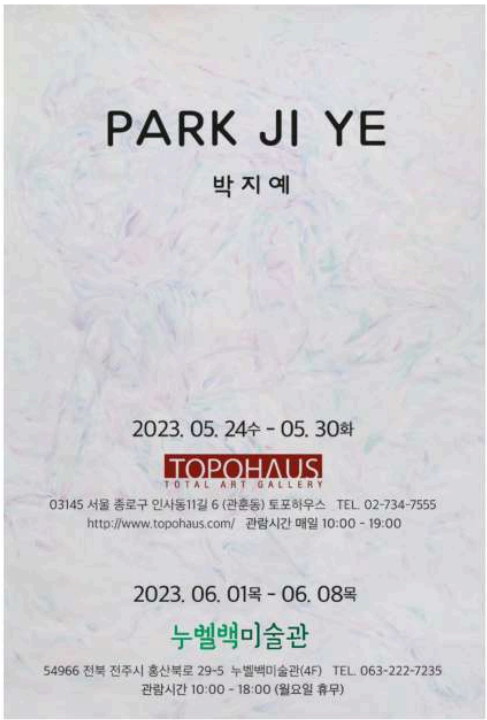
장소: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인사아트센터 6층)

작가의 수묵은 실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산수가 한국화가 아닌 전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산수화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세필에 담아낸 시간>이라는 주제로 금강산이 지닌 이중성을 금분을 이용해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작가의 <몽유금강>은 아름다운데 슬프고 웅장한데 처연한 금강산의 아이러니 그 자체를 보여준다. 얼핏 화려해 보이지만 아름다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금강, 웅장하고 묵직한 산세와는 대조적으로 둥둥 떠다니며 표류하는 금강산의 모습이 마치 우리 민족이 걸어온 불운의 시절을 상징하는 듯하다.

금가루를 물과 아교에 개어 1만 2천 봉우리를 하나하나 세필을 통해 그려낸다. 검은 먹으로 짙게 칠해진 배경 위에 수직으로 길게 내려 그 어진 수많은 금빛의 산봉우리들은 육중한 바위산의 중량감을 잃은 채 공중에 부유하고 있다. 쉽게 채워지지 않는 선을 긋는 반복적 행위, 그 속에서 그는 현대인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상경(理想境), 화려하지만 신기루 같은 유토피아를 본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채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초기의 <몽유금강>이 금강산의 재현에 충실했다면 최근의 <몽유금강>은 재현보다는 가는 붓으로 치밀하게 금분의 선을 수직으로 중첩 시키는 작업 그 자체에 더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검은 배경을 가르는 푸른 여백은 작가가 경험하는 새벽의 빛이자 경계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한 선 한 선 작가는 선을 내리긋는다. 금빛에 가느다란 세필의 반복은 시간이 되어 화면 안에 나타난다. 작가의 시간은 희망적인 염원에 메시지로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숭고함을 담고 있다. 이렇듯 작가의 <몽유금강>을 통해 보는 이들은 잠시나마 삶의 진리에 대해 고민해보고 사유와 성찰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지예 개인展

마주침의 표현

일정: 2023. 06. 01 - 06. 08

장소: 누벨백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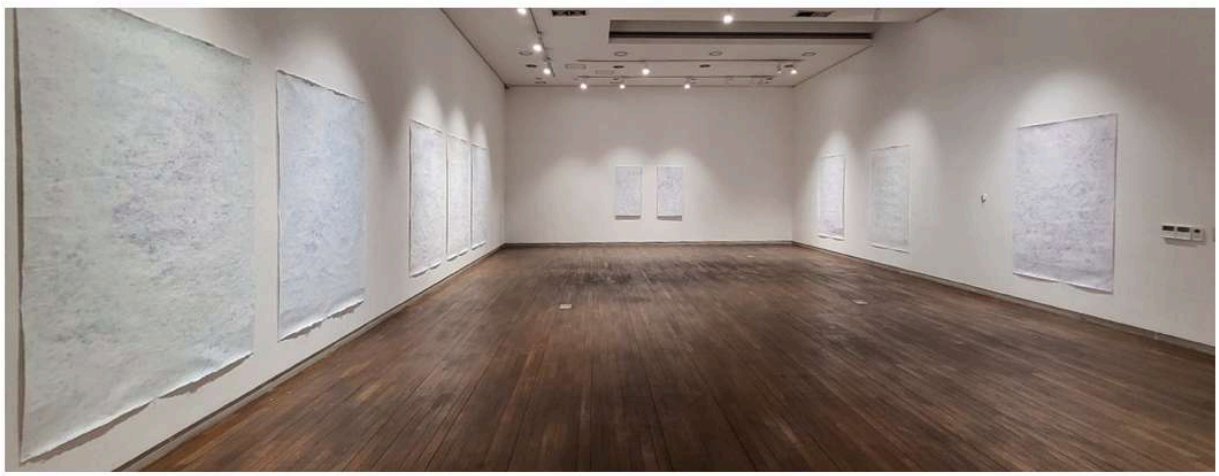
마주침의 표현 # 하나의 세계 # 우연적

이번 전시는 '마주침의 표현'이란 주제로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내가 눈으로 보는 형태는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이고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눈으로 보는 세계에 대한 소통을 통해 자신의 본성과 외부 자연의 본성 사이의 마주침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신의 탄생과 함께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이런 세계는 행위의 표정, 감정, 생각과 같은 보이지 않거나 말할 수 없는 어떤 세계에 대한 마주침으로 나타난다.

화면 속 대상의 몸짓과 행위는 붓과 물감의 마주침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우연적 색감으로 변화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대상의 관념에 의존하지 않고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만경습지(萬頃濕地) 244×1464㎝ 한지, 유연묵, 계모필 2023

박종갑 초대展

만경(萬頃)_생명의 길

일정: 2023. 05. 26 - 07. 08

장소: Gallery OMOKE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366

현대의 인간들은 과학이 이루어내는 속도와 변화에 숨가쁘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물질문명은 생활의 편리를 주고 있으나 인간적 삶은 불안과 번민으로 가득 찬 형국이다. 과연 우리는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오늘날 정신보다는 물질을 중시하는 과시적 소비문화가 타성화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번민에 찬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천인합일(天人合一)과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정신적 근원의 의미들을 되새겨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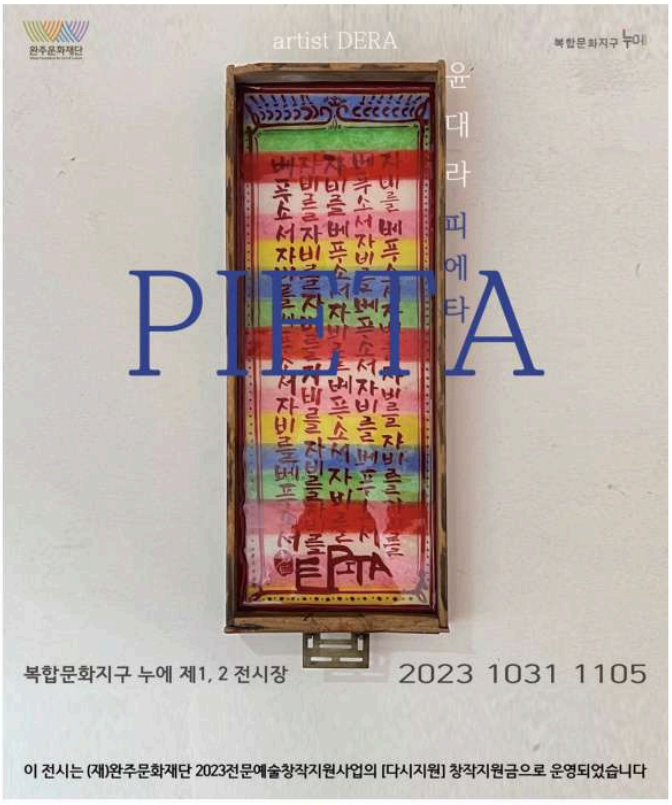




피에타-윤대라展

일정: 2022. 10. 31 - 11. 05.

장소: 복합문화지구 누에 제1, 2 전시실



신선한 충격으로 호평을 받았던 전시 <피에타>가 완주문화재단의 전문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의 '다시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기존에 전시된 작품 외에 500호에 이르는 대작 '피에타-삶과 죽음' 등 새롭게 제작된 작품들로 설치, 보다 섬세하게 정제된 전시를 보여주었다



손종민 개인展

독백

일정: 2023. 09. 15 - 09. 24

장소: 미광화랑





자유를 맛보는 유일한 과정이며 영혼을 풀어주는 행위이다.

또한 자화상 성격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결국 나를 객관화시키는 상황까지 대면하게 되고 깊은 평온한 사색을 공감하는 시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먹그림은 일종의 계획 없이 거친 오석(烏石)을 조각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먹 작업은 하얀 종이에 엷은 먹 선을 시작으로 형상을 만들고 조금씩 단단한 검은 형상을 만들면서 망치로 부수고, 끌로 깍아 내는 조각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

먹 작업 중 가장 필요하며 힘든 것은 과감한 감성적 결정인 듯하다 . 이것은 모든 예술적 작업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나 특히 먹 작업에는 과감한 예술적 감성 선택이 필요한 듯하다. 발가벗긴 날 것 같은 감정 자국들이 그대로 보여 주는 먹 작업이 오히려 현실에서 맛 볼 수 없는 음악적이고 평온한 자유를 나에게 주고 있다.



Untitled 91x53cm(x19) 한지위에 혼합재료 2023

권기철 개인展

일정: 2023. 09. 11 - 09. 15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 전시장

캔버스는 흔적 없는 고요로 나를 압도한다. 간혹 그 앞에서 놀라 길을 잃기도 한다. <어이쿠>, 그야말로 어이쿠를 내지르며 호흡이 멎기도 한다. 갑자기 일상은 아득해져 오고, 오롯한 나와 무참히 낯선 나를 본다.

폭발하는 내면과 침묵하는 평면, 붓을 세운다. 붉고 파란 점, 선, 색채가 각별하고 섬세한 개인적인 것들을 기록한다. 붓의 소리는 은밀하고 더 은밀하게 일상의 궤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최근의 작품 <그리고, 일상의 은밀한 서사>는 좀 더 아름다운 나의 길을 내는 흔적이며, 나아가 <무제>는 온몸이 붓이 되어 생각조차 지우고 싶은 '의미 없어도 괜찮은' 혹은 어떤 '이름으로 규정하기 싫은' 그림들이다.







박방영의 諧謔

일정: 2023. 10. 02 - 10. 31

장소: 그 미술관

빈센트 반 고흐가 좋아했고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일본 에도시대의 화가 가쯔시카 후쿠사이는 일본이 자랑하는 풍속 화가다. 유명한 <부악 36경>의 화가로 그는 사물을 그릴 때 외형만이 아니라 그 물상의 본질까지도 연구 분석하는 철저함을 지녔던 화가로 사람을 그릴 때는 접골 전문가에게 근골의 해부학까지도 사사 받고 연구했다고 한다.

그는 생활에서도 작품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분방한 예술인으로 "… 이번 생은 꿈이다. 미쳐라" 라는 격정적인 생의 화두로 평생을 일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자유분방한 삶속에는 예술을 향한 경건함과 투철한 정신이 배어 있어 고흐나 모네 드가 등 서양의 화가들도 그의 화풍에 영향을 받았음이 증명 되고 있다. 드뷔시의 교향곡 바다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그의 그림은 자포니즘이라는 미술용어를 탄생시킬 만치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임희성 개인展

미디어전

일정: 2023. 06. 26 - 07. 06

장소: 강남 신세계 센트럴 광장





박성수 개인展

촉각공간

일정: 2023. 09. 21 - 10. 15

장소: 공간시은 (디오차드 카페 2층)

서울과 전북 지역을 오가며 역량있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꾸준히 기획하고 있는 '공간시은'(운영자 채영)이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실제사물과 현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이어오고 있는 박성수 작가의 초대전을 연다. 전시제목 <촉각공간>은 감상을 위한 정보나 서사, 상징적 의미들을 생략하는 대신 작가의 손끝 터치들이 남긴 자국들에 의해 촉각만이 강조되는 작품의 표면을 의미한다. 종이 반죽을 두드리고 눌러가며 만든 표면은 특정한 형상을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색도 칠하지 않은 여백의 공간이다. 작가는 손으로 종이 반죽을 평면 위에 바르고 펴가면서 자신이 작업 과정에서 느끼는 촉감을 시각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시도한다.

작가는 디지털 화면을 통해 시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현대사회에서 촉각적인 작품을 통해 실제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는 신체의 지각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작가는 "현대인의 불행이 디지털로 매개된 시각 중심주의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촉각적인 시각예술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예술을 실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술작품도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는 요즘, 예술은 그저 디지털화 된 정보로서 순식간에 소비되는 위기에 빠지는데, 촉각적인 작품들은 예술을 실제 존재하는 실체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채영 기획자는 "6,70년대에 한지를 조형재료로서 사용한 작가들의 작품은 전통적 혹은 한국적 미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로 해석되었다. 이와 달리 박성수 작가의 경우 한지의 상징적 의미들보다는 재료적 성질을 이용하여 관객이 오롯이 촉각성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재료에 가해진 신체의 흔적들이 고착되는 한지의 물성을 통해 관객은 작품이 강조하는 촉각을 시각적으로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다





정미현 개인展

소리의 은유

일정: 2023. 11. 21 - 11. 27

장소: 누에아트홀 1, 2전시실

이것, 소리 그리고 빛 sound and vision

태초에, 지금, 소리와 빛이 있다. 소리와 빛은 모두 입자이자 파동이다. 양자역학이 말하듯, 우리는 동시에 둘 모두를 알 수 없고, 오직 입자인 상태 또는 파동인 상태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둘은 모두 촉각의 대상이다. 소리와 빛은 모두 물질이다. 이는 참으로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자, 소리와 물질에 관한 이론이다. 강태환의 소리와 정미현의 빛은 모두 물질에 관한 실천이다. 우발성의 유물론에 따라, 이 둘의 마주침은 이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다른 이것을 발생시킨다.

마주침, 우발성의 유물론 materialism of contingence

공연이 시작되고 강태환의 색소폰이 실내를 울린다. 정미현은 단정한 자세로 붓을 들고 화지 앞에 서 있다. 강태환과 정미현과 관객과 공간과 시간, 이 모두가 물질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물질이니, 물질이 아닌 것이 없고, 따라서 오직 물질들의 다른 배치에 의한 다른 결과들만이 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이 음악이 나오지 않을 테고, 이 공간이 아니면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것이다. 강태환이 없었다면 이 공연은 없었을 것이고, 정미현이 없었다면 이 장소는 없었을 것이다. 이 관객들이 아니라면 공연은 달리 들렸을 것이고, 따라서 사실은 공연 자체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이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글도 물론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이것들, 강태환의 색소폰과 정미현의 그림은 이미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다. 이것은 마주침, 즐거운 마주침이다.

허경 (철학자)



양선(Change for goodness) 60.6×72.7cm Mixed media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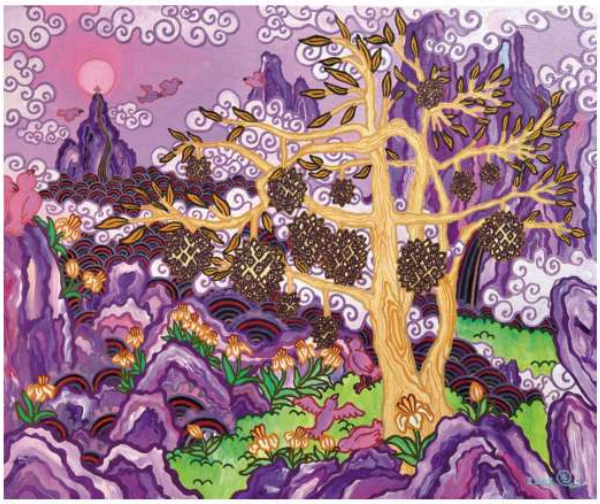
자비(GOD is a merciful) 60.6×72.7cm Mixed media on canvas

최지우 개인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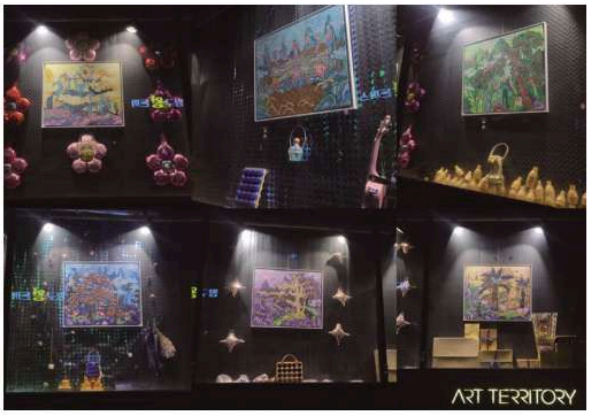
일정: 2023 .01. 01 - 01. 31

장소: 서울장학숙 JB Dream gallery

최 작가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된 어머니의 육아일기와 스물여섯까지의 생애를 돌아보며 행복했던 기억, 에덴의 순간들을 작품에 담았다. 작가가 표현하는 에덴(Eden)이라는 단어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충성(keep GOD's commands) 60.6×72.7cm Mixed media on canvas 2022





HEAVEN(천국)展

일정: 2023 .02. 01 - 03. 31

장소: 군산시민예술촌 아트테리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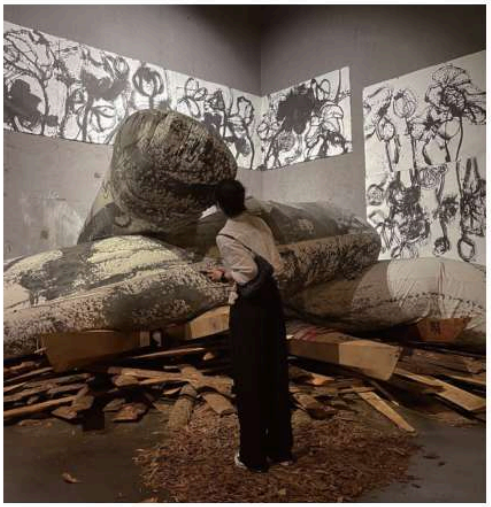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기념展

광주화루展 친숙하고도 낯선

한국회화회 참여작가 : 이호억

일정: 2023. 04. 03 - 07. 07

장소: 광주은행 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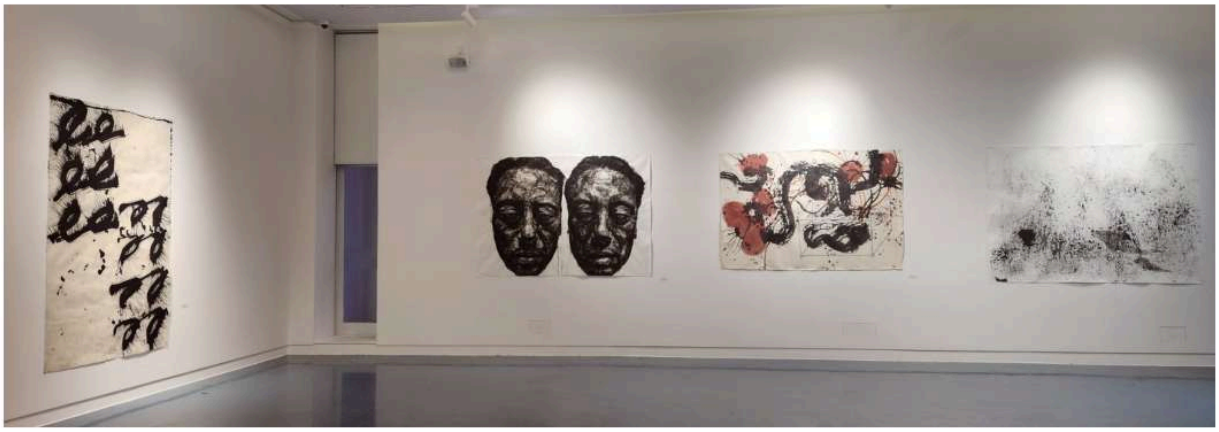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Wild Wild West

한국회화회 참여작가 : 이호억

일정: 2023. 04. 21 - 07. 16

장소: 엠엠 아트센터 A전시동(전시실-1, 2, 3)

Wild Wild West, 와일드, 웨스트, 평택, 경기 서남부, 거칠고 거친, 새로운 개척과 연결, 자연과 야생, 잠재성, 다종의 가능성, 낯선 에너지와 대체 감각, 탈중심화, 현재진행형



동행 - 일곱 개의 별

참여작가 :
권기철, 박지예, 손종민, 송화정,
이지희, 이호억, 정미현

일정: 2023. 10. 10 - 10. 22
장소: 누벨백미술관

동행, 일곱 개의 별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전주, 완주, 논산, 대구, 경기, 부산지역에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학연, 지연을 벗어나 작가 개인의 작업에 함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서로의 가치와 작가 정신을 담아내는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수묵화 작업의 새로운 모색을 찾아가는 일곱 명의 작가들은 墨과 筆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적 작업을 전주 한지에 담았다. 수묵회화와 한지의 메카, 전주에서의 전시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교동미술관 기획展

참여작가 :
이호철, 이보영, 황유진, 소완호,
김성수, 정소라, 이주원, 김판묵,
임희성, 이병로, 엄수현, 고보연,
박마리아

일정: 2023. 01. 17 - 01. 29
장소: 교동미술관







민초-달이 떠오르면 2022

2023 세계혁명미술展

한국회화회 참여작가 : 박종갑, 윤대라

일정: 2023. 06. 02 - 06. 15

장소: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전시관

이번 특별전은 동학농민혁명 129주년을 기념하여 '혁명, 그리고 혁명 그 너머의 것들'이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52명의 작가가 총 68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참여작가들은 올해 특별전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사건과 인물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적 사실의 미술적 복원 △동학농민혁명이 지향한 정의, 민주, 평등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저항운동을 기록한 미술작품과 상징의 구현 △1894년 서구의 폭력적 근대화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오늘날 어떤 시대적 과제로 계승되고 있는가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작품을 출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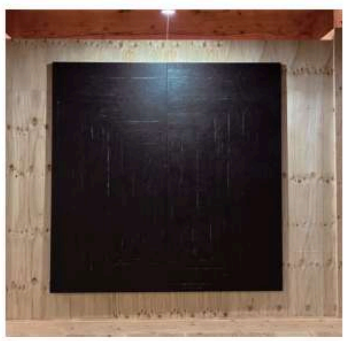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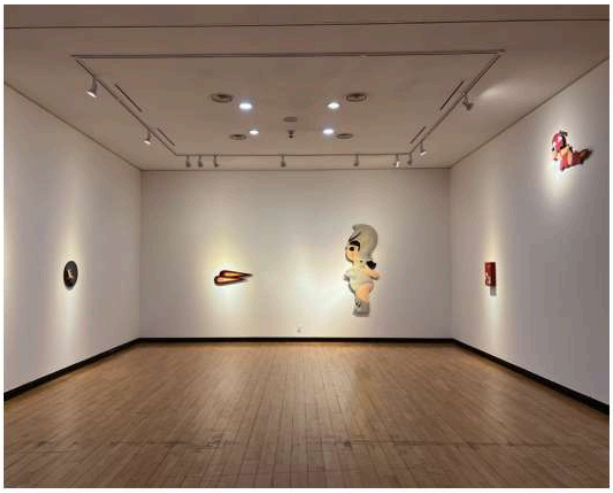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한국회화회 참여작가 : 박종갑, 권기철

일정: 2023. 09. 01 - 10. 31

장소: 해남 대흥사(호국대전), 목포시, 진도군 등 전남 일원





이 땅에 새 숨展

한국회화회 참여작가 : 윤대라

일정: 2023. 10. 28 - 11. 08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



최종병기 그녀 40X25cm Mixed media 2013/2023(remastering)



대라쇼 10 to 10

일정: 2023. 07. 03 - 07. 11

장소: 사용자공유공간 PLAN C

100년 된 가옥에는 백 년 된 도깨비가 산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응원하는 치유의 퍼포먼스
울랄라선녀마마의 아묻따부적상회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

참여작가: 박방영

일정: 2023. 09. 19 - 12. 10
장소: 공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참여작가:
문지영, 박혜성
소성경, ARTEO
안수민, 안예섬
안충국, 이민지
이호연, 임초인
채진숙, 정예랑
정인영, 최지우
한혜영

청년작가 기획展 BLUE

일정: 2023. 07. 31 - 08. 12
장소: 172G 갤러리



특별기고

48 파주 미술기행 / 박방영 작가 탐방
49 중앙시장 사람들, 그후 30년
50 전근대 우리나라의 접착제
'왕의 초상화와 관의 채색에는 최상품의
아교와 녹각교를 사용했다!'
52 "지천년, 견오백(紙千年,絹五百)"
한지의 성지, 전주 흑석골!
54 기억의 반추(反芻)를 통해 나타난
'내면의 섬' 표현 연구
56 찾아가는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Artrium MORI



파주 미술기행

-박방영 작가 탐방-

송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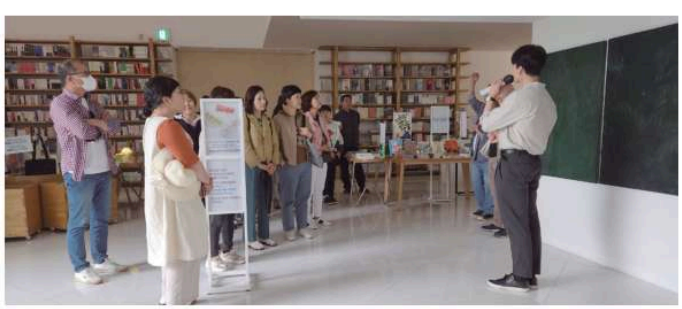
한국회화회 주관으로 두 번째 미술기행을 떠났다.

파주미술기행은 박방영작가 작업실을 중심으로 파주지역의 미술관과 헤이리 문화공간을 탐방하였다. 이 기행에는 미술전공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중, 고 미술지망생과 미술애호가들이 동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기행이었다.

우리는 서양적 기법과 동양적 요소의 접목을 시도하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작업을 하시는 박방영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다. 작가님은 방문한 회원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그 작품에 담긴 사연과 사상을 설명해주셨다. 특히 서예에 능숙해 글씨와 그림이 혼용된 작품을 하시는 작가님은 "그림은 인생의 원석, 순도를 찾아가는 길인 것 같다" 며 "그림을 통해서 자연과 사물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고 하셨다.

또한 작업실을 탐방한 우리들을 위하여 특별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 한지에 여러 가지 좋은 글귀를 서예로 써서 선물해 주셨는데, 그 작품에 개인의 삶의 지표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000(이름)의 길'이라는 글을 써 주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작가님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값진 선물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중앙시장 사람들, 그후 30년

- 전북회화회가 한국회화회로 확대되다 -

이철량

지난 1990년 전주 중앙시장 사람들이 그림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가난했으나 따뜻한 눈빛을 가진 이웃들이었다.

전주 옛 북문 밖 아주 오래된 시장이다. 시장은 붉은 빛깔의 포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성당을 붙잡고 누추하게 줄지어 자리하고 있었다. 성당 앞 큰 길가에는 나이 든 할머니들이 좌판을 열어놓고 소란스럽고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곳이다. 여기에는 항상 어수선하고 분주하며, 힘든 나날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남루한 시장사람들의 핏기없는 얼굴들이 눈에 어른거리는 곳이다.

지난 1990년, 20대 젊은 청년작가들 몇이서 중앙시장 사람들을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그림으로 그려냈다. 이는 결국 자신을 바라보려는 노력에 다름아니었다. 모두 이런저런 사연들을 찾아 어렵고 고단한 삶을 화면에 옮겨 풀어내며 세상 이야기를 이어가자던 의지들을 묶어 모임을 만들었다. 전주 얼화랑에서 "중앙시장사람들"전을 열며 전북회화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전북회화회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30여년을 마치 하루를 보내듯 진지하게 그리고 열정으로 활동해 왔다. 그리고 30년 그후 중앙시장도 반듯하게 단장되었고 상인들의 얼굴도 핏기가 돌며 훈훈한 모습으로 변해왔다. 시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시장을 찾는 사람들로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중앙시장이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 전북회화회도 많은 성장을 거듭했다. 그간 매해 전시는 끊이지 않았으며, 평론가 박용숙교수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많은 외부 인사들과도 함께했다, 한동안 한국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청소년 사생대회를 가졌는가하면 파출소 그림 달아주기로 사회와 소통하기도 했다. 참으로 남다른 열정으로 30여년을 하루같이 달려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30회를 거듭한 전북회화지에 고스란이 쌓아두었다.

이제 30여년을 달려온 전북회화회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발길을 다지기로 하였다. 유능한 작가들이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 여러 곳에서 참여해 주었다. 그래서 한국회화회로 이름도 바꾸었다. 그 시작을 2023년 올해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갖는다. 1990년에 20대로 중앙시장사람들전을 시작했던 정미현이 한국회화회 회장으로 첫 전시를 펼치는 것도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 같다.

한국회화회는 21세기 한국미술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작금에 들어 미술계에 단체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작가들간에 소통이 부족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회화회는 이와같은 빈 공간을 메우며 한국 현대미술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믿는다.





전근대 우리나라의 접착제, 왕의 초상화와 관의 채색에는 최상품의 아교와 녹각교를 사용했다!

김병모(동국대 문화학술원 HK연구교수)

교(膠)는 동물의 가죽, 힘줄, 창자, 뼈 등을 물과 함께 끓여서 추출한 천연 단백질이며,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접착제를 지칭하는 용어의 하나에 해당했다. 교에 관한 이른 시기의 기록물 가운데 하나인 「周禮」 考工記에서도 "膠는 붙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으며, 후한시대 문헌인 「설문해자」, 「이아」 등에서도 동일 의미로 풀이했다. 주로 짐승의 가죽이나 물고기의 껍질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한글로는 '가죽의 풀'을 뜻하는 '갓블', '갓플', '갓풀'등으로 명명했다. 일본에서는 삶다(煮)에 해당하는 'に'와 가죽(皮)에 해당하는 'かわ'를 합성하여 '니가와'라는 명칭을, 서양에서는 'glues', 'glue', 'gelatin'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대개 원 재료를 끓여 교질을 추출한 후 여과, 농축, 응고,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했다.



「釋譜詳節」(1447)



「訓蒙字會」(1527)



「類合」(1543 이전)



方藥合編」(1885)

화학적으로 교는 콜라겐(Collagen, C102H149O38N31)에 해당하며, 여기에 글리신(Glycine), 프롤린(Proline), 하이드록시프롤린(Hydroxylysine) 등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했다. 이들 아미노산은 동물마다 그 구성비가 다르며, 따라서 각각 물성을 달리하는 요인으로 기능했다. 아울러 단백질을 주요 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식용 및 약용으로도 사용했다.

이와 같은 동물성 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제조, 사용되었으며, 주로 내륙아시아와 서아시아 등이 주요 기원지로 이해되고 있다. 사해 근처 나할 메마르 동굴 출토 유물과 고대 이집트 유적의 회화 및 공예품 등에 사용된 교의 경우 각각 기원전 6000년, 기원전 2500년 경에 해당한다. 그리스지역의 경우도 우피교와 어교 제조에 관한 기록이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의 「동물사」에 언급되며, 로마 학자 플리니우스(23-79)의 「박물지」에도 어교의 제조 및 사용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현존 자료에 근거할 경우 중국이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하며,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저작으로 간주되는 「五十二病方」과 「周禮」 등은 가장 오랜 교 관련 기록물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고분벽화에 사용된 구교가 가장 이른 제조 용례에 해당한다.

동물성 교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출현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시대 우교, 어교의 출현과 더불어 이후 토교, 녹교, 철갑상어부레교, 고래꼬리교 등의 제조로 확대되었으며, 흑해 지역에서는 철갑상어교, 북극 인디언 거주 지역에서는 연어, 송어 등의 알을 이용한 어란교, 연해주 지역에서는 해삼교 등을 생산했다. 중국의 경우 전국시대 마교, 우교, 녹각교, 서교(犀膠), 어교 등의 제조를 시작으로 이후 저교(猪膠), 구교(狗膠), 서교(鼠膠), 타교(駝膠), 여교(驢膠), 나교(騾膠), 미록교(麋鹿膠) 등 다양한 종류의 교를 생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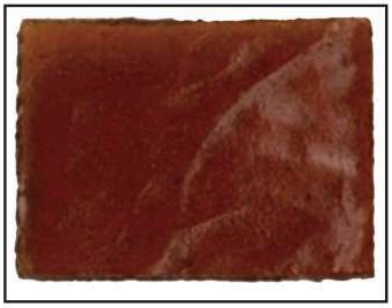
중국의 경우 대개 동물 이름을 앞에 붙이는 명명법을 선호했는데 어교(魚膠)와 같이 물고기 전체를 강조하여 범칭으로 명명한 경우, 표교(鰾膠) 및 녹각교(鹿角膠) 등과 같이 사용 부위인 부레(鰾) 및 녹각을 강조하여 명명한 경우, 황명교(黃明膠), 청교(淸膠), 백교(白膠) 등과 같이 교의 색과 투명도 등에 초점을 두고 명명한 경우, 개교(蓋膠)와 같이 아교를 끓여서 추출할 때 위 부분의 맑은 것을 지칭하여 명명한 경우, 조교(條膠)와 같이 나뭇가지 모양의 긴 막대형 교를 지칭하여 명명한 경우, 수교(水膠)와 같이 물소로 제조된 교를 지칭하여 명명한 경우, 아교(阿膠), 광교(廣膠) 등과 같이 산동성 동아현과 광동 및 광서지역에서 산출되는 교를 강조하여 명명한 경우 등 다양한 방식의 명칭 및 명명법을 출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 문화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교에 관한 명칭이 어떠한 역사적 전개 과정을 거쳐 정착, 분화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다만, 삼국시대에 이미 狗膠, 糜鹿膠 등 몇몇 종류의 교를 출현시킴으로써 교 문화의 일정한 토대를 형성했다.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신라양가상묵(新羅楊家上墨)', '신라무가상묵(新羅武家上墨)' 등도 신라에서의 교 제조를 상정케 한다. 아울러 아교, 미록교(糜鹿膠) 등의 명칭 출현으로부터 중국식 명명법 수용의 일면도 읽게 한다. 이러한 양상은 고려시대도 지속되어 아교, 녹각교, 黃明膠, 白膠, 槐膠 등 보다 다양한 교 명칭을 출현시켰으며, 아울러 우피(牛皮), 나피(騾皮) 등 제조원에 관한 기록 역시 보다 다양화, 구체화했다.

조선시대의 경우 고려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종, 다양의 토대 위에서 교 문화를 전개했으며, 우피교, 녹각교, 마피교(馬皮膠), 여피교(驢皮膠), 민어교, 석수어교(石首魚膠), 연어피교, 오교(螯膠), 황교(黃膠), 봉취교(鳳嘴膠), 어타(魚駝) 등 10여 종이 넘는 교를 제조했다. 여피교는 당나귀 가죽으로, 민어교와 석수어교는 각각 민어와 조기의 부레로, 오교와 황교는 커다란 게의 딱지와 집게발로, 어타는 바다고기나 모래무지의 뼈로 제조했다. 특히 어타의 경우 재료를 뽕나무 잿물과 섞은 후 뽕나무를 태워서 가열, 제조함으로써 다소 특이한 제조법도 출현시켰다. 게다가 그릇 모양의 틀에 교의 액을 넣어 굳힌 후 그릇을 만들거나 혹은 편으로 만들어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됨으로써 소용처 역시 특이한 면모를 내보였다. 뿐만 아니라 난교(鸞膠)와 같이 거문고 등의 줄을 잇는 특수한 접착제도 출현시켰다.



막대형 아교



황갈색의 반투명 녹각교



어교 제조용 민어 부레

조선시대에는 교의 생산 지역도 상당히 광범위했다. 우피를 위주로 한 아교의 생산은 전국 각지에서 전개했으며, 특히 중앙의 군기시와 선공감 등에는 아교장을 두어 생산을 전문화했다. 해산물을 위주로 한 어교 역시 충청, 전라, 경상, 경기, 황해, 평안, 함경 등 각도의 바다 및 강 인접 상당수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녹각교 역시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평안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조선시대 교는 약재로서 상당량이 소비되었지만 채색과 포수 등을 비롯하여 병기 및 목기 등의 제작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접착제로 보다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다. 일례로 1901년 의정부찬정 택지부대신서리 이용익이 의정부의정 윤용선에게 진연 준비 과정에서 각종 기물의 채색에 필요한 아교를 청구한 바 있는데, 수량이 935근에 달했다. 이들이 모두 채색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함께 청구한 안료의 양 역시 천여 근에 이르고, 안료와 동일한 항목에 포함시켜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량이 채색에 사용된 경우였다. 1902년도 고종의 60세 생일 진연을 위해 의정부찬정 탁지부대신 김성근이 의정부참정 김규홍에게 청구한 아교량 역시 469근에 이르렀으며, 함께 청구한 안료량 역시 수백 근에 달했다. 특히 왕실 초상화의 어용에는 내의원에 있는 최상품 아교를 주로 사용했으며, 대부분 약재로 소비된 녹각교 역시 왕의 명정과 재궁 등에 금분으로 글씨를 쓰거나 대렴 과정에서 관 표면에 분채 장식을 할 경우 내의원에 있는 최상품 녹각교를 가져다 사용했다.

조선시대에는 교 종류의 확대뿐 아니라 교 관련 기록도 수천 건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고려시대 몇 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기록 문헌 종류도 고려시대 2~3종에서 수십 종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관찬서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의궤」, 「각사등록」, 각종 지리지 및 법령자료 등을 통해 공납지역, 유통량, 소용처 등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했다. 아울러 어교는 각 군현의 궐공 항목에, 아교와 녹각교는 각 군현의 약재 항목에 분류, 분정함으로써 수취 체계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교가 국가적 관심을 받는 물품의 하나로 등장했음을 나타내주는 동시에 교 문화 발전의 상당 부분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 문화 발전이 다종, 다양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 발전 단계로 진입했음을 말해준다.

“지천년, 견오백(紙千年,絹五百)” 한지의 성지, 전주 흑석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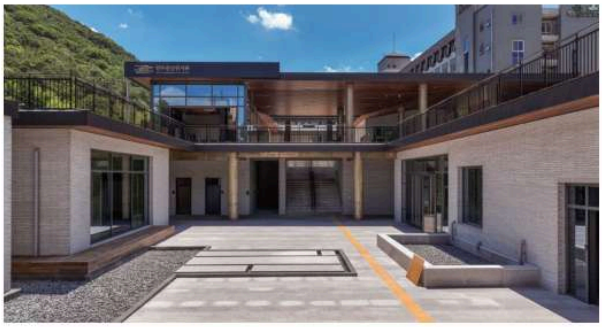
김 도 영(재)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문화재학박사)

“지천년, 견오백(紙千年,絹五百)”, 이 말은 한지에 작업을 하면 천년이 가고, 비단에 작업을 하면 오백년을 간다는 의미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조선의 종이는 중국 사신들이 다투어 받기를 원했고, 그중에 으뜸은 전주한지이다.”는 기록이 나올 만큼 전주는 최고의 종이를 생산했던 곳이다. 전주에 위치한 전라감영에는 한지를 제조하는 ‘지소’라는 곳이 있었다. 조선시대 한지 제조와 제도는 “1415년(태종 15)에는 국영 제지공장이며 종이제조 사무담당기구이기도 한 조지소(造紙所)가 설치되어 제지기술과 합리적 생산관리에 관한 일이 맡겨지고 지질(紙質)의 개량과 생산원가의 절하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지방공장에는 모두 698인의 지장이 각 도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제지기술자들은 법적인 우대를 받도록 규정되어 생활보장을 받는 특전이 부여되었다.”(출처: 한국학중앙연구회)고 한다.

전주한지의 우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특히 보존용지로써 특수성을 인정받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문화재복원용지로 선정되었고, 이탈리아 국립보존복원 중앙연구소의 복원용지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24년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 신청목록으로 선정하였고, 2026년에 최종 확정될 것에 대비하여 전통한지의 생활화 및 시설 구축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통한지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전주시는 작년 5월 23일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흑석골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천년한지관>을 개관하였다.

옛 지명에 ‘돌이 반, 흙이 반’이라 해서 ‘반석리’라고 불리었던 서학동(동서학동, 서서학동)은 산자락에서 검은 돌이 많이 나오면서 대중적으로는 ‘흑석골’로 불리우게 되었다. 흑석골은 주변을 감싼 주변 산 위 동굴에서 시작된 풍부한 물줄기가 골짜기를 따라 큰 폭의 낙차를 만들며 전주천까지 흘러갔고, 흑석골 동남쪽 뒤로는 보광재가 있는데 이 보광재는 옛날 완주군의 구이면과 임실에서 전주로 통하는 고갯길로써 물자를 이송하고 행인들의 지름길 통로로 이용한 중요한 길이다. 이 길은 한지 제조의 주원료인 닥나무를 재배하는 임실로 뻗어 있었고, 인근에는 생산된 한지를 전국의 상단에게 유통·판매할 수 있는 남부시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보광재는 전주시에서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여 사라지지 않도록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

이처럼 한지 생산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춘 흑석골이 한때 ‘한지골’이라는 별칭으로 명성을 드높일 때가 있었다. 해방 이후 흑석골에도 점진적으로 거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인근 지역의 피난민과 이주민들까지 흑석골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 중 지공들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 1950년대 당시 전국적으로 규모를 갖춘 제지공장이 많지 않았는데 흑석골에는 ‘전주제지’가 이전부터 한지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후 1960년대 들어서 제지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흑석골에 지공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중소규모의 한지생산 공장(가내수공업 포함)이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고 ‘전주의 산업지대’라고 할 정도로 흑석골이 번성하









게 되었던 것이다. 1980년 초반까지 청조제지, 문성제지, 문산제지, 호남제지 등 약 20~30여개의 한지공장들이 성업하였다. 당시 제지업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였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천년한지관이 발간한 『돋음집』 내용에 보면, "흑석골에서 흐르는 물은 ph 7~9를 넘지 않은 중성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양질의 한지생산에 적합했다고 한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하는 이유는 산성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인데 전통한지는 중성지의 성질을 띠어 오래 간다고 한다. 중성화가 종이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다. 즉 흑석골은 자연 굴에서 발원하는 풍부한 수량의 물, 경사진 지형으로 인해 생긴 큰 폭의 낙차, ph 7~9를 넘지 않는 종이생산에 적합한 물성 덕분에 전국 최대·최고의 한지를 생산 할 수 있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최대 규모의 한지생산지인 흑석골이 1980년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환경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1990년 후반 중국산 저렴한 기계지가 대거 수입되면서 국내 한지생산업체들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어쩔 수 없이 기계지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통 전주한지의 생산은 급감하였고 설 자리를 잃어갔던 것이다. 또한 흑석골의 한지공장들은 표백제의 정제되지 않은 오폐수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로 대부분 자리를 옮겨가야만 했다. 이렇게 한때 흑석골이 아닌 한지골로 불리었던 찬란한 명성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시대변천적 상황을 고려하고,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주천년한지관>이 흑석골에 개관하였고, 전주한지를 전통기법으로 생산하는 기술 및 소재(원료)연구를 주요업무로 하면서, 전주한지의 복원 및 계승, 후계자 양성 및 한지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닥무지 행사를 통해 '한지골'이라 불리우던 시절 한지공장에서 근무하셨던 마을 주민들과 직접 닥무지 작업을 하며 작은 마을 축제를 열었다. 또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흑석골이 한지골로써 자리했던 스토리를 채집하고 알리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이제는 흑석골에 대한 혁신적이면서 큰 마스터플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세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종이인 전주한지 생산단지가 재조명 받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국민들이 찾고, 세계인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세계종이의 성지로써 '한지골'이라는 명성을 드날리기를 소망한다.

기억의 반추(反芻)를 통해 나타난 '내면의 섬'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이 지 희(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박사논문 국문초록

본 초록은 본인작품 '내면의 섬' 연작을 대상으로 주제적 특징과 상징성, 나아가 조형적 가치를 분석한 작품 연구논문이다. 따라서 '내면의 섬'의 주제적 바탕을 이루는 기억의 반추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연구를 토대로 창작 의의와 동기, 표현에 따른 조형성 등을 분석하였다.

기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며, 특히 동양에서는 경험을 중시하는 심미 체험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삶에서 기억은 존재 의식의 근원적 의미를 일깨워주는 핵심 개념이자 역사적으로 예술과 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주제이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어떠한 형태로든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남아 있다. 이러한 경험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사건에 의해 필요에 따라 떠올려지거나 혹은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고 없이 떠올려진다. 이렇듯 기억은 이미지의 잔상이거나 혹은 감정이 동반된 형태로 소환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떠오른다. 다양한 기억의 양상 중 본인은 잊히지 않는 특정 시기에 대한 감정이 마음속 찌꺼기처럼 남아 끊임없이 반추되는 현상과 마주하는 경험을 한다. 본인의 특정 시기는 잦은 이주로부터 겪은 이방인과도 같은 삶인, 즉 그 어디에서도 속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었던 시기이다. 이렇게 내면에 생성된 불편한 감정을 인지하고 존재의 질문으로 대면하는 일련의 과정을 '내면의 섬' 연작의 창작 동인으로 삼았다.

먼저 '내면의 섬'의 주제적 특징이 되는 기억에 관하여 동·서양의 심리학적·철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다양한 기억의 성격을 나누어 감정으로 떠올려지는 현상을 프로이트(Freud Sigmund, 1856-1939)의 '이물질' 개념으로, 또한 기억이 반추되는 개념을 수잔 놀렌-혹스마(Susan Nolen-Hoeksema, 1959-2013)의 '반추적 반응양식(ruminative response style)'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억의 반추는 부정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생산된 부정적 요소가 정화되는 근거로 한유(韓愈, 768-824)의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에 거론된 "마음에 맺힌 불평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불평즉명(不平則鳴)' 이론을 빌려 논하였다. 또한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의 '의식작용'과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의 '상상의식'을 통해 기억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기억과 반추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나아가 스스로 자기 해소에까지 이르는 본질적 존재 질문에 대한 자각에 도달할 수 있었다.

'내면의 섬' 연작의 이론적 특징으로는 불편한 감정기억을 스스로 정화하기 위한 가공과 '섬'으로 구축되는 배설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기억이 예술적 창작물로 변환된다는 '비흥(比興)'의 개념에 대입하여, '비'는 감정기억이 일으켜지는 작품의 동기를 의미하고 '흥'은 마음속 불편이 예술 창작물로써 변환되는 것으로 논



내면의 섬 200x376cm 8폭병풍 장지에 한지 비단 수묵콜라주 2022

하였다. 이처럼 창작물로 변환된 기억을 정화의 의미로 카타르시스(Catharsis)에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자기 해소이고, 심리적 초월을 의미하는'자기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화'된 '섬'은 끝없이 펼쳐진 내면세계에 생성되는데 이를 장자(莊子)의 '무하유(無何有)'를 빌려 깊이를 알 수 없는 초자연적 바탕인, 즉 우주적 근본원리인 도(道)이며 그곳에서 내유(內遊) 하는 것이 '내면의 섬' 창작 가공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기반으로 조형적 특징인 '1차 그리기', '2차 오리기', '3차 붙이기'의 가공은 자신의 그림을 오리는 행위로 부정성을 제거하는 상징적 의미이며, 새로운 화면상의 응집체로 표현되는 것이 행위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조형화 과정을 거친 작품은 '신화 속 인물'과 '혼돈의 동산', '심해(深海)수족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세가지 시리즈에 공통된 주제적 특징으로는 신화(神話)적 차용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신(神)은 억압된 기억으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로 설정한 나만의 신(神)이다. 때문에 억압된 기억의 해체와 조립 과정을 통해 조성된 '내면의 섬'의 신화적 의미는 본인의 결핍과 극복 의지가 반영된 정신이 투영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인에게 있어 기억은 감정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반추된 기억은 '내면의 섬' 조합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조형화된 '내면의 섬'은 본인 그 자체이며 정화된 '나'를 상징한다. 나아가 개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나'까지 관계하며 이상적 모습의 '나'를 소망하게 한다. 즉 '내면의 섬'은 자신의 비극을 스스로 정화하는 예술적 심미체험이 작품에서 표출된 것이고, 실제로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듯 본 논문은 '내면의 섬' 작품연구를 통해 스스로 정화된 '자기화'의 단초가 되고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확장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찾아가는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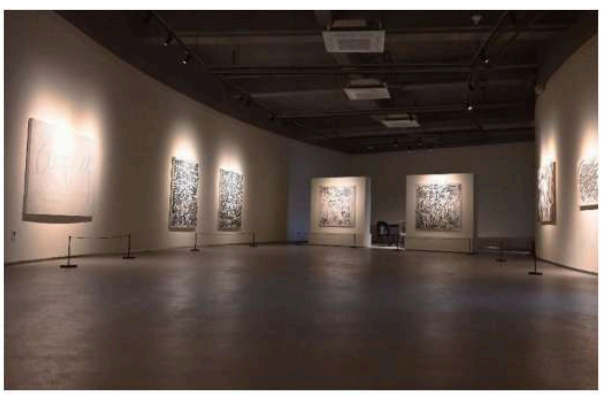
복합문화공간

Artrium MORI

경북 성주군 월향면 주산로 450

모리는 신라시대 산을 일컫는 옛 우리말입니다. 아트리움 모리는 흔들림 없이 우직한 산처럼 여린 작가와 맑고 투명한 유리같은 작품들을 듬직하게 품어주는 공간이길 희망합니다. 또한 실력 있고 개성 넘치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세상에 소개하는 영감의 샘이길 자처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아트리움 모리의 품 안에서 느긋한 여유와 사색, 잊고 지낸 감수성과 찰나의 영감을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한국회화

발 행 인 정미현
편 집 인 정미현
편집위원 손다운, 송태정
발 행 일 2023. 12. 08

Design by 도서출판 디자인북스 063-232-6690

이 책에 수록된 도판과 텍스트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도판이나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2023 by Korean Painting Ar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author.

※ 본 전시는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3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 전북아티스트지원사업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전시공모선정

메세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3670지구 서전주 로타리클럽
한국회화회 후원금 1,000,000원 기부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400770-01-004229 한국회화회)

목차